

#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이달부터 시범 운영

도교육청, 시범학교 3곳 선정... 지원·예방 중심 변화 일환

학교에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스스로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기로 해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월부터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적발·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올해 8월 이후 종합감사(예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6회 실시했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기존 재무감사만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교무·학사감사도 포함된다. 이에 종합감사 예정 학교에서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운영을 희망

파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상 문제점 및 교직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시정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자율과 예방의 감사체계를 구축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직원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감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1차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해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사항 등을 사전에 시정·개선함으로써 학생 관련 사항, 그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상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일환으로 숨은키 10cm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 ‘숨은키 10cm 찾는다’

도교육청, 영양상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초등생용·중등생용 워크북 제작 상담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상담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영양상담 전문가과정 연수를 실시, 어린이 식생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했고, 또 전북영양상담연구회(JBNC) 회원들을 중심으로 영양상담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 배부했다. 9월부터 전북교육청 영양상담 진단 시스템을 구축·운영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으로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식생활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 전문적인 영양상담

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숨은키 10cm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초등학생용, 중등학생용 워크북을 각각 제작해 영양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워크북에 키, 몸무게, 생활습관 등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한 달간 4가지 키 크기 미션을 실천해 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서기 문예체전감과정은 "가공식품과 열량 위주의 간식 섭취 증가, 아침 결식 등의 식생활은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만, 식품알레르기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맞춤형 영양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정책, 나의 꿈을 더하다’

도교육청,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발표... 최종 5편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정책, 나의 꿈을 더하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총 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후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2차 심사,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 5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에듀테크 활용, 손으로 바로 오는 전북교육 소식 △진리북도 내 국제교류 수업의 성공적 도입 △자주를 살리는 의미있는 한걸음(현교 육상,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설

치) △지역을 품은 환경 교육 △통화차량 외부 활용 전북교육 홍보 등이다. 도교육청은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관부서의 시행 가능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북교육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영팀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됐다"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도내 대학, 대학혁신지원 전국 최고 'S등급' 획득

전주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지원 대상 117개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이에 전주대는 지역산업 및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 및 지역특화 인재 양성,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을 통한 미래 창의인재 양성, AI Coaching 기반 학생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혁신 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교육혁신 전략 영역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박진배 총장은 "학생성과와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며 "학생-대학-지역이 함께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우석대

우석대학교(총장 남정현)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을 양질의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총 1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년도 연차평가는 △혁신계획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의 지표를 평가해 포괄사업비 외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석대는 혁신계획 S등급과 자체 성과관리 A등급 등을 받아 인센티브 약 35억 원을 확보했으며, 포괄사업비 41억 원 등 총 76억 원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남정현 총장은 "이번 S등급은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은 결과라며 "추가로 확보된 인센티브 재원은 교수법 개발과 교육 시설 확충, 학생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성공을 위해 더욱 더 혁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의료용기기 기업·연구소 유치 잇따라

티티엠 중재의학연구소 전북대에 입주... 총 7곳 유치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센터장 박찬희 이하 기기센터)가 의료용기기 기업 및 연구소를 잇달아 유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주)티티엠의 전주 연구소인 (주)티티엠 중재의학 연구소가 입주했다. 이로써 우리 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연구소는 모두 7개다. 이번에 전북대에 입주한 (주)티티엠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의료용기기 제조업체로, 2016년 연 매출 100억을 돌파하고, 2022년 지역혁신선도 기업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카타르 스탠과 해외수출 계약을 맺었다. 박상수 (주)티티엠 중재의학연구소장은 "이번 입주를 통해 기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적극 활용해 중재의료기기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주)티티엠의 전주 연구소인 (주)티티엠 중재의학연구소가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기술융합 연구센터에 입주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박찬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중재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전북과 전주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편, 기기센터는 지난 2019년 산업융합지원부의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중재의료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를 완공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 'A등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3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71억5,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됐다. 2023학년도 총 사업비는 223억4,000만원이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과 지역 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비전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경제·문화를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강화와 맞춤형 취·창업 강화 등 '큰사업'을 키우고 모집단위 영역화 등 학사구조 개편으로 학생중심 대학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공동 해결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변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대학 간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연구 분야에서는 기초보화학문 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특성화 연



구 지원체계를 확립해 국가·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글로벌 Top 100'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선도 융복합 교육 확대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함께 역량강화 지원 확대, 전북권 정주 지원을 통해 세계와 지역을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를 기를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A등급 평가는 학생중심 대학, 지역상생 대학,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변화하려는 전북대학교의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우리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문성철 교수,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연구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문성철(데이터공학과) 교수는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문성철 교수 연구팀은 XR-AI 융합연구로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우수신진연구과 최초혁신실험실에 선정된 데 이어 '적응형 XR 크로스모달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 주제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까지 선정된 것.

이번에 선정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은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속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지원 사업이다. 이에 3~10년 동안 연간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문 교수팀은 최근 MIT, WashU(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와의 공동연구로 차세대 뉴로픽 AI 컴퓨팅 기술 관련 연구 주제가 최상위 저널인 Nature Materials (SCI, IF: 47.7, JCR 1/161)에 게재 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성철 교수는 "이번에 전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데이터공학과가 신설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형 융합 실무 인재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미래 사회는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성장할 것이므로, 데이터공학(데이터사이언스) 분야는 취업 기회와 미래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식물방역대학원, 전북대서 3개 대학 학생 성과 공유

식물방역대학원이 지난 9일 전북대에서 3개 대학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제2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 식물방역대학원 재학생들 간 교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3개 대학 식물방역대학원 재학생 및 교수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대학원생들의 우수 연구 발표, 그리고 해외 선진지 연구 방문기 발표 등이 진행됐다. 전북대학교 이규재 사업단장과 박승우 식물방역대학원장의 개최식 및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상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이 '농약의 일반적인 현안과 당면 현안'에 대해, 그리고 현행업 고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미래농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한 학기 동안 국내외 병해충 분야 연구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은성 기자

## “정부 과기의전원 설립 검토 우려”

거점국립대총장협 정기회의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6일 울릉군에서 2023년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회장교)·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가거점 국립대들의 협의체로, 이날 회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설립 검토 중인 과기기술특성화대학 내 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과기의전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과기의전원 설립 검토에 대해 △과기기술특성화대학의 성공모델인 '선결과 집중 전략의 퇴색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 △부속대학병행 설립 등에 따른 전문적인 국가예산의 중박투자와 남비 △의사국가고시 관련 의료법 개정의 불가피성'과 이에 따른

파장 등의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기술특성화대학의 기존 성공모델인 선결과 집중이 약화되는 문어발식 확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과기의전원 설립이 아닌, 이미 구축돼 있는 의학교육 및 의료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과기특성화대학의 소프트웨어와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이 보유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함된다면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의 고도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및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